
碩士學位 請求論文

兒童의 表現能力과 知能의 相關에
關한 研究

— 濟州道內 國民學校 兒童의 自由畫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梁 昌 普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姜 榮 久

1989年度

兒童의 表現能力과 知能의 相關에 關한 研究

— 濟州道內 國民學校 兒童의 自由畫를 中心으로 —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美術教育專攻

提出者 姜 榮 久


指導教授 梁 昌 普


1989年 月 日

姜榮久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89年 月 日

主審 夫 賢 

副審 姜 昌 吾 

副審 李 明 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I. 序 論	5
A.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5
B. 研究의 制限點	6
II. 理論的 背景	7
A. 兒童畫의 表現 活動	7
B. 兒童畫의 發達 過程	10
C. 兒童畫의 知的 關聯	14
III. 研究의 方法	19
A. 研究의 對象	19
B. 測定 道具	19
C. 資料의 處理	21
IV. 結果 및 解釋	22
V. 要約 및 結論	30
A. 要 約	30
B. 結 論	31
○ 參考文獻	33
○ 附 錄	35
○ 英文抄錄	44

表 目 次

〈表 1〉 年齡別 輪廓線 處理 能力	16
〈表 2〉 회수 및 이용 상황	19
〈表 3-1〉 性別, 지역別, 학년別 지능지수	22
〈表 3-2〉 性別에 따른 觀點別 表現능력 점수	22
〈表 3-3〉 지역別에 따른 觀點別 表現능력 점수	22
〈表 3-4〉 학년別에 따른 觀點別 表現능력 점수	23
〈表 4-1〉 都市 兒童의 知能과 自由畫의 相關關係	23
〈表 4-2〉 農村 兒童의 知能과 自由畫의 相關關係	24
〈表 5-1〉 都市 아동의 知能과 觀點別 表現능력의 상관관계	24
〈表 5-2〉 農村 아동의 知能과 觀點別 表現능력의 상관관계	25
〈表 5-3〉 학년別 지능과 觀點別 表現능력의 상관관계	26
〈表 6-1〉 性別에 따른 지능과 表現능력의 상관관계의 차	26
〈表 6-2〉 지역別에 따른 지능과 表現능력의 상관관계의 차	27
〈表 7-1〉 性別에 따른 지능이 表現능력에 미치는 영향	27
〈表 7-2〉 지능이 表現능력에 미치는 영향(地域別)	28
〈表 7-3〉 지능이 表現능력에 미치는 영향(학년別)	28
〈表 8〉 知能과 表現能力的 差異	29

圖 目 次

〈圖 1〉 描畫 發達 過程	10
----------------------	----

I. 序 論

A.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Comenius가 人間이란 感覺을 통하여 學習한다. 그리고 人間이 經驗을 表現하는 過程에서 어떤 訓練이 必要없이 가장 자유롭게 直接的으로 表現할 수 있는 것이 그림이다.¹⁾

Louis Danz에 의하면 그림이란 人間이 느끼고 보는 바를 나타내는 情緒的 經驗이다²⁾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그림이란 人間 自身이 經驗한 事實을 자유롭게 形象化 시킬 수 있는 方法이기도 하다.

이러한 그림중에서도 특히 兒童畫는 1893年 Barnes가 “兒童畫의 한 研究”란 論文을 發表한 이래 많은 心理學者들의 研究對象이 되어 왔는데 心理學者들은 사람은 言語로 表現하기 어려운 自己의 感情狀態를 形象化 시킬 수 있는 媒體를 찾고 있으며 그 媒體속에 自身의 感情狀態를 投射한다는 假說을 내놓고 研究하기 시작했다. 이 假說을 土臺로 한 研究에서 兒童의 그림이란 客觀的인 現實보다는 自身의 內面世界 즉, 慾求, 興味, 葛藤, 性格, 知的 能力 등을 잘 反映하고 있다는 結論을 얻게 되었다.

또한 兒童畫는 美術的 表現에 끝나는 것만 아니라 兒童의 精神世界의 投射이므로 그 兒童의 性格과 成長發達 그리고 소박한 生命力 自體의 表現으로 보아야 한다.³⁾

이와같이 兒童畫는 곧 表現者 自身을 나타내므로 그들의 知的 成長發達과도 깊은 關係가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Lowenfeld는 兒童의 知的發達이란 그의 環境에 대한 表現을 얼마만큼 잘 나타내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았으며, 兒童의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色彩나 空間의 調和에 이르기까지 모든 表現속에 知能發達이 나타난다고 보았다.⁴⁾

兒童畫와 知能의 關聯性에 관한 研究가 Goodenough나 Lowenfeld 같은 學者들에 의해 進行되었는데 특히 Lowenfeld는 兒童畫에 있어서 表現能力과 兒童의 知能과는 密接한

註) 1) Rose. H. Alschuler and Hattwick, L. Berta Weiss, Painting and personality (Chicago III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 P.10.

2) Ibid, P.7.

3) 韓國美術教育學會, 「美術教育」(서울 : 교학도서, 1970), PP.52~53.

4) Victor Lowenfeld and W. Lambert Brittain, Creative and Mental Growth(N. Y : The Macmillan Co, 1964), PP.285~305.

關係가 있다는 假說을 提起하였다.

兒童畫를 통하여 兒童의 特性을 探知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重要하며 知的發達の 評價와 함께 兒童의 正常的 創造活動을 激勵하는 過程으로 個性을 育成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또한 그림을 통하여 發達狀態를 比較分析할 수 있고 兒童의 創造的 自己表現에 있어서 指的 能力이 造形活動에 미치는 影響을 研究하는 것도 價値있는 일이라 본다.

따라서 兒童畫를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意味에서 知能과 表現能力의 相關性을 分析하여 造形行爲에 知能이 어떤 作用을 하는가 糾明할 必要性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보다 客觀的인 方法으로 兒童을 理解·發展시켜 兒童의 表現 能力과 知能의 關係를 辨別, 分析하여 봄으로써 兒童 美術教育의 效率性을 높이는 것은 물론 情緒의 表現活動과 認知的 活動間의 調和있는 均衡 發展에 寄與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이와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研究하고자 하는 細部的인 問題는 다음과 같다.

첫째, 知能과 自由畫와 의 相關關係를 糾明한다.

둘째, 知能과 觀點別 表現能力과의 相關關係를 糾明한다.

셋째, 性別, 地域別에 따른 知能과 表現能力의 相關關係 差異를 檢證한다.

넷째, 知能이 表現能力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한다.

다섯째, 性別, 地域別, 學年別에 따른 知能과 表現能力의 差異를 檢證한다.

B. 研究의 制限點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은 制限點을 갖는다.

1. 本 研究의 對象은 特定한 學校의 兒童들로 限定하였기 때문에 一般化하기 어렵다.
2. 知能은 經驗에 의하여 習得된 知力을 포함한 知的能力을 意味하지 않고 좁은 意味의 生得的인 知能(IQ: Intelligence Quotient) 즉 國民學校用 一般知能檢査에서 算出된 點數로 限定하였다.
3. 表現能力의 評價에 있어서는 KEDI의 評價尺度表를 適用하였으나 評價者의 主觀에 따라 差異가 있을 것이다.

II. 理論的 背景

A. 兒童畫와 表現活動

1. 兒童畫의 本質

兒童畫에 대한 19c 이후의 心理學的 接近은 兒童畫를 理解하는데 커다란 功獻을 하였다. 最近까지의 이들 心理學的 接近이 兒童畫를 보는 見解는 대체로 知力과의 關聯(認知, 知覺)과 情緒와의 關聯(感動, 느낌)으로 볼 수 있다.

美術教育家들은 兒童畫를 그 心理的 動機로 볼 때 意思疏通과 表現의 言語라고 보고 있고, 兒童畫를 研究하는 사람들은 作品을 이루는 過程의 特性을 밝혀 보려는데 많은 努力을 기울였다. 이들은 兒童들이 보고 느끼고, 視覺的 刺戟에 대하여 反應하고, 이러한 刺戟들을 그림으로 表現하는 方法등에 관해서 많은 研究 結果를 얻어냈다.

Luca와 Kent는 兒童畫의 本質에 관련된 여러가지 見解들을 知力과의 關聯을 強調하는 立場에서 몇가지로 要約하고 있다.⁵⁾

- 創作 表現 過程은 複雜한 思考의 過程이며 經驗(學習)과 關聯을 갖는다.
- 最近의 認知理論의 發達は 美術에 관한 心理學의 理論에 有益한 接近과 關心을 提供하였다. 이것은 兒童畫의 發達段階에 있어 知覺, 概念形成의 基本的 概念을 갖게 하였으며 知能을 進化的 構造로 理解하게 되었다.

- 美術教育에 관한 研究가 人性 發達 過程에 많은 努力을 傾注해 왔는데 이것은 認知와 表現內容에 관한 研究로 看做될 수 있다.

그러므로 美術教育에 있어 認知樣式을 應用하는 어떤 學習理論의 構造도 感動의 過程과 그것이 知力 및 人性構造에 주는 效果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 兒童의 視覺的 表現은 概念成熟의 反映인바—Piaget의 空間概念理論—兒童들에게 知覺的 活動過程을 提示한 Bauhaus의 教育課程은 妥當性を 지닌다.

- Guilford, Torrence 등에 의한 最近의 創意性에 관한 研究는 兒童들의 創意的 能力, 美的 感性이 다른 潛在能力과 같이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見解에 따른다면

5) Mark Luca & Robert Kent, Art Education : Strategiee of Teaching(New Jersey :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68), PP.24~26.

兒童들에게 感覺的, 知覺的 經驗을 初期에 提供하는 것은 認知發達 및 創意性 發達에 매우 有益할 것이다.

· 人間の 創意的 思考過程과 美術創作過程을 比較 考察해 볼 때 美術教育은 創意性的 涵養에 必然的 過程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uca와 Kent의 最近 心理學과 관련된 이러한 見解는 美術教育의 本質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兒童畫의 本質을 知的 關聯으로 理解 하려는 觀點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 兒童畫의 研究

藝術과 人間の 關係는 날이 갈수록 그 要求가 切實해 지고 있다. 따라서 美術教育도 그 存在나 方法에 많은 研究가 要請되고 있다. 그 까닭은 現代의 刻薄한 機械文明속에서 人間性과 메마른 人間感情의 回復이 要求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兒童畫의 概念이나 認識이 달라져 가고 있으며 兒童畫에 대한 研究가 활발한 것도 事實이다. 兒童의 그림을 훌륭한 하나의 兒童畫로서 發見한 것은 20세기 末에 들어서면서 일이다.⁶⁾

이 당시 世界 各國의 初期 美術教育은 자유스러운 發想이나 技法面은 無視되고 단지 臨畫教育이 重視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美術教育도 점차 再認識되어 그림은 兒童의 心情에서 비롯되는 創造的인 發想이며 自己表現이라는 思想이 일기 시작한 것은 20世紀 初 獨逸, 오스트리아를 中心으로 전 유럽에서 美大陸으로 전파되었다.

自由畫의 運動은 兒童 그림교육 運動으로 오스트리아 F. Cizek이 始祖가 되는 셈이다. 이 自由畫는 여러 각도에서 重要的 役割을 하게 되나 특히 美術教育의 方法論的 形態의 圖書는 소위 革命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變하였다.

a. 心理學的인 面에서의 研究

나이가 어릴수록 本能은 솔직하다. 바꾸어 말하면 부끄러움이나 假飾이 없는 兒童일수록 表現은 象徴的이고 直說的이다.⁷⁾ 따라서 兒童의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兒童의 性格의 特性과 無意識의 世界인 兒童의 精神의 世界를 알아 낼 수도 있다.⁸⁾

6) 金永學, 美術의 教育(서울: 향서각, 1977), P.18.

7) 金正, 兒童과 美術教育(서울: 培英社, 1983), P.55.

8) 金在恩, 그림에 의한 兒童의 心理診斷(서울: 教育科學社, 1978), PP.28~36.

S. Levinstein, Kerschensteiner 등의 心理學者는 兒童畫를 모아서 分類하고 研究하여 여러 角度的 結論을 내렸다.⁹⁾ 즉 兒童의 自由畫는 이제까지 價値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결코 그렇지 않고 兒童의 天眞한 感情과 生活이 表現되어 있으며 이것을 길러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兒童畫를 知能 發達面에서 知能 發達의 程度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兒童에게 사람을 그리게 하고 머리를 그렸는가(1점), 두개의 발을 그렸는가(1점), 두개의 팔을 그렸는가 등의 方法으로 採點하여 兒童의 知能 程度를 綜合하고 知能 年齡을 決定했다.

b. 造形活動 面에서의 兒童畫

兒童은 出生과 더불어 母體와 分離되면서 離乳期가 온다. 離乳期의 쓸쓸함과 不安을 매우기 위해 그들은 아무 意味도 없는 그림을 마구 그린다. 兒童은 대개 첫 돌이 지나고 3~4歲에 錯畫를 그린다. 즉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마구 그린 線의 덩어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마구 그리는 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左右 上下의 反復이 계속되며 결국 동그란 圓의 形態로 發展해 간다.¹⁰⁾ 이때는 벽, 창문, 책표지 등에 닳치는 대로 그린다. 아동은 描畫自體 보다도 굿는 자체에 興味를 느낀다.¹¹⁾ 이런 점에서 幼兒期의 藝術教育은 藝術이나 科學的인 것 보다는 過程上의 活動을 重要視하는 創意的 表現이 한 덩어리가 된 狀態의 生活教育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¹²⁾

兒童畫의 行爲를 보면

1) 表現活動은 言語活動과 音樂活動을 더욱 즐겁게 해 준다.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는 즐거움은 情緒的 安定을 돕고 情緒的 安定은 教育上 重要的 役割을 한다.

2) 基礎的 能力의 싹을 북돋워 줌은 물론이거니와 初步的 色彩, 形態, 物件의 質感, 量感 등의 造形的 感覺을 길러 준다. 이는 創意性 培養과 풍부한 生活感情을 느끼게 해주며 教育의 發展에 重要的 經驗을 갖게 한다.

3) 그림 제작을 통하여 衣裳이나 집 또는 그밖에 形態에 대해 造形的 感情을 갖게 해주며 친구들과의 접촉이나 協力活動은 社會性의 初步的 活動이 된다.

4) 그림을 통해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며 생각하게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 幼兒의 表現意欲을 높여 造形的 感情을 만족시킴은 풍부한 生活을 영위하는 基礎的 態度가 된다.

9) 金永學, 前掲書, P.18

10) 金正, 幼兒의 描畫 分析(서울: 백록출판사, 1975), P.62.

11) 上掲書, P.39.

12) 金在恩, 李星珍, 藝術을 통한 教育, 幼兒教育全書 6(서울: 培英社, 1980), P.5.

이러한 行爲를 幼兒의 造形感情으로 이끄는 것이 造形活動의 始初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感覺으로 그들의 놀이를 合理化시키는 좋은 契機를 갖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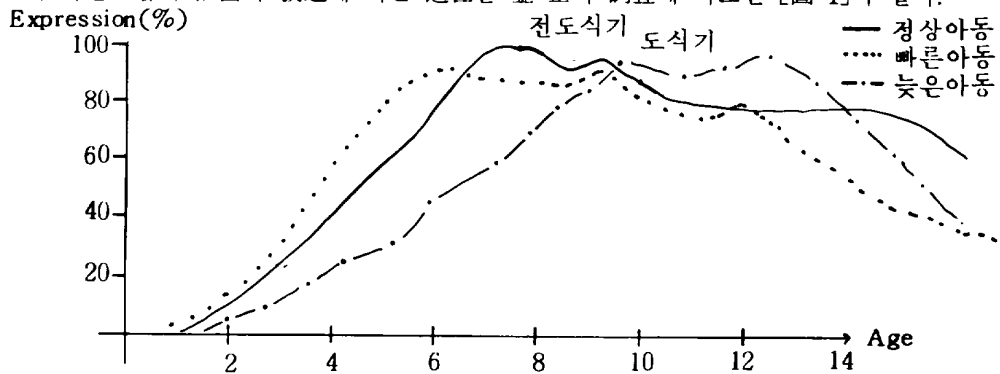
B. 兒童畫의 發達過程

人間的 成長過程에는 過程마다 特徵이 있다. 이런 特徵은 肉體의인 外形의 關係에서 뿐만 아니라 精神의인 內面의 범위에서도 나타난다.

內面的인 精神問題 研究는 여러 方法으로 試圖되고 있지만 心理學的 根據에 의한 科學的 分析을 통한 것이 普遍性을 지닌다.¹³⁾ 또한 言語나 表示의 傳達手段이 意思疏通에 不可能할 때 급적겨려 놓은 그림 또는 落書を 가지고 統計에 의한 調查 및 研究 結果를 얻게 된다.¹⁴⁾

兒童의 心理的 變化는 극심할 정도로 잘 바뀌는 樣相을 보여 주므로 變化를 면밀히 檢討 調查해 볼 필요가 있다. 兒童의 描畫 表現은 그들에 대한 描畫 成長 發達 過程을 研究 分析해 봄으로써 각 段階마다 兒童의 特性과 描畫 本質을 研究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兒童畫의 發達段階는 Luquet가 '投射的 假定'에서 提示하는 바와 같이 情緒의 非現實의 段階에서 知的인 現實의 段階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¹⁵⁾ 이 分野에 관해서는 여러 學者들이 끊임없이 研究하고 있으나 대체로 相等하다고 볼 수 있고, 兒童이 한 段階, 한 段階를 통해 자연스럽게 描畫가 發達해 가는 過程을 金正의 調查에 따르면 [圖 1]과 같다.¹⁶⁾



[圖 1] 描畫 發達 過程

13) 金正, 幼兒의 描畫 分析(서울: 백록출판사, 1979) P.37.

14) 金正, 幼兒의 美術入門(서울: 一志社, 1983), P.75.

15) 金在恩, 人物畫에 의한 知能 測定(서울: 培英社, 1967), P. 16.

16) 金正, 幼兒의 描畫分析(서울, 백록출판사, 1979), P. 113.

Lowenfeld는 “創造的 精神的 發達”이란 그의 研究에서 兒童의 그림발달을 亂書期, 前圖式期, 圖式期, 靑時代, 擬寫實期, 思春期の 6段階로 區分하였다.¹⁷⁾

1. 亂書期(Stage of Scribble) : 2~5歲

描畫能力이 未熟한 段階로서 目的意識없이 끄적거리는데 粗雜하고 衝動的인 描畫가 연속된다. 이 段階는 初期, 中期, 末期로 나누고 初期에는 손에서 그어지는 그림 形態가 똑똑 끊어지는 現狀이 나타난다.¹⁸⁾ 筋肉運動의 未分化 狀態로 끊어져 連結이 안되다가 中期에는 끊어진 線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能力이 생기면서 左右로 끄적거리는 平面的 直線에 가깝게 된다. 末期 段階에선 左右로 움직이던 連結線이 初步的인 回轉運動으로 나타나고, 이 回轉運動의 始初는 圓으로 發展하여 한 개의 圓을 엄마라고 表示하는 象徴性이 想像으로 昇華한다. 이러한 想像의 表現性은 自己 表出의 段階로 넘어가게 된다.

2. 前圖式期(Pre-Symbolic Stage) : 5~7歲

亂書期の 無意識的인 表現過程으로 부터 처음으로 意識的인 時期로 접어든다. 그러므로 兒童들은 무척 感情的으로 그들의 本能 欲求에 의해 그리고 싶은 意慾만을 表現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연필이나 그 밖의 材料를 支配하는 能力이 不足하기 때문에 完全한 形象을 그려내지는 못한다.¹⁹⁾

Piaget는 이 時期를 直觀的 思考의 世界로 區分짓고 이 때가 되면 兒童은 다소 複雜한 心象과 完全한 概念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兒童은 그들이 보고 느끼는 特徵들의 象徴을 나타내는데 이 時期는 굵적거리기의 圓 表現이 最初의 人間 表現으로 바뀌어 圓形의 머리와 작대기 같은 팔 다리로 바뀌어 진다. 이 때의 人間 表現은 대부분 머리어거나, 단순한 머리, 다리로만 表現된다.²⁰⁾ 이것은 兒童의 本能的 意識에서 맨 처음 느껴진 人體 部分이 머리를 통하여 처음으로 認識되기 때문이다.

17) V. Lowenfeld, Creative and Mental Growth(N.Y: The Macmillaw Company, 1964), PP. 93~350.

18) 金正, 前掲書(1983), P. 76.

19) Lowenfeld, 前掲書(1964), PP. 84~85.

20) R. Aischuler and Hattwick, Painting and Personality(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47), P.77.

輪廓의 발달이 成熟해 지면서 사람의 몸체를 둘러싼 部分으로 移動하고 이 時期에 部分的인 細部까지 精密描寫하는 能力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며 사람의 얼굴도 웃는 表情에서 부터 여러 가지 形態의 變化까지도 그려내게 된다.²¹⁾

또한 精神的인 能力의 差는 있으나 생긴대로 또는 놓여 있는대로 그리려는 接近이 試圖되는 時期이다. 이러한 過程은 곧 事物의 概念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觀念的인 思考 段階에 이르고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²²⁾

3. 圖式期(Symbolic Stage) : 7~9歲

이 時期는 사람과 事物에 대한 일정한 概念을 찾아 낼 수 있는 能力과 判斷이 생겨나기 때문에 獨自的인 表現이 나오게 된다. 이것은 人物이나 事物에 대한 概念이 不足하여 그것을 反復하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反復하는 경우는 經驗의 情緒的인 內容에 따라서 判異한 差가 생기게 된다. 結果的으로는 空間과 時期의 概念이 同時的이며 表現에 있어서의 特徵도 內面과 外面, 正面과 側面이 同時에 表出됨으로서 극히 圖式化된다. 그리고 이 時期는 他人의 圖式을 引用하여 模倣하기 쉽다. 또한 形式化된 概念이 反復됨으로 해서 생각하는 方法을 남에게 依存하게 되고 그로 인해 表現運動에 있어서 柔軟性을 喪失하기 쉽다.

4. 黎明期(Gang Age) : 9~11歲

社會的 獨立을 要求하는 時期로서 共同作業에 대한 意欲이 활발해지며 자신에 관하여 自覺하고 異性間的 性觀念에 눈뜨게 된 女兒는 자기 옷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들끼리 暗號나 隱語를 만들고 어른의 要求와 對立한다. 이러한 것이 描畫에도 나타난다.

描畫의 特色도 지금까지의 圖式的이고 幾何學的인 線으로 부터 점차 事實的이며 客觀的인 表現 類型으로 바뀌어 진다. 自我를 知覺하여 描畫에 직접 대들려는 意識이 약해지며 어렸을때의 자기 그림보다도 못한 幼稚하고 漫畫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기 쉽다. 이 時期는 그림을 잘 그리려 하지 않고 말썽을 부리는 時期이다.

21) 金正, 前掲書(1979), PP. 100~101.

22) 上掲書, P.133.

5. 擬寫實期(Pseudo-Realism) : 11~13歲

知覺의 發達로 論理的으로 成熟해 가는 時期이므로 論理的 時期라고도 하며 이 時期의 兒童들은 各者의 知性에 눈뜨게 되나 아직도 兒童다운 놀이를 하고 논다. 身體의 成長에 따라 無意識的인 것에서 批判的인 것으로 이어져 가는 想像活動의 變化는 이 時期의 重要한 特徵이다.

이 무렵 兒童들에게는 視覺型(Visual Type)과 非視覺型(Non-Visual Type)의 傾向이 나타난다. 視覺型은 空間을 遠近法的으로 나타내려는데에 關心을 가지며 大氣狀態에 나타난 色彩, 빛과 그림자의 모든 變化에도 關心을 갖는다. 또한 自身의 環境에 대해 關心을 갖고 구경꾼의 기분으로 作品을 밖에서 바라보는데 비해 非視覺型은 자신과 意味와의 情緒的 關係를 強調하고, 자기 作品에 마음을 쏟으며 內容的인 表現을 위주로 한다.²³⁾ 그리하여 다가오는 思春期를 통하여 여러 가지 變化가 兒童의 身體的, 情緒的, 精神的 成長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6. 思春期(Adolescence Stage) : 13~16歲

모든 事理의 判斷을 느낄 수 있는 時期이므로 자신의 創造的인 作品에도 능히 批判的인 能力이 있고 視覺型과 非視覺型의 區別이 明白해진다. 또한 素質이나 適性에 따른 個個人의 能力이 明白하게 되므로 個性과 適性이 分類되어 자기의 個性에 맞는 成長으로 향한 進路가 決定되는 始初가 되는 것이다.²⁴⁾

이상과 같이 Lowenfeld의 研究를 基準으로 分類했으나 絕對的인 것은 아니며 여러 연구를 調査, 比較하여 公約數的인 結論만을 발췌하였다. 이외에도 H. Read, R. Kellogg, M. Lindstrom등과 함께 Lowenfeld의 心理學的 根據위에 兒童의 描畵를 통해 韓國的인 형편에 맞춰 일곱 단계로 區分지어 놓은 金正의 研究도 있으나 가장 一般化된 普遍妥當性 論理에 의한 Lowenfeld의 分類에 따랐음을 밝힌다.

23) 李鍾學, 어린이 美術教育(서울:美造社, 1978), P.44.

24) 金正, 前掲書(1979), P.155.

C. 兒童畫와 知的 關聯

1. 兒童畫와 知能

兒童의 美術的 表現은 成人의 그것과는 매우 相異한 特徵을 지닌다. 兒童은 그림을 媒體로 하여 그의 性格, 內面世界, 心理的인 特性, 그리고 成長要因 및 過程 등을 그대로 表現한다. 이와같이 아동의 그림에서 그들의 精神的 成長의 程度를 알 수 있기에 이것을 그림의 投射의 機能이라 한다. 따라서 兒童畫를 통해 兒童의 知的 成長의 程度를 알 수 있으며 知的 發達의 水準을 評價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그림에 投射되는 成長要因으로써 情緒的, 身體的, 社會的, 美的, 知的 成長 등으로 細論할 수도 있겠으나 知能和 兒童畫를 連結짓는 本 研究의 性格에 비추어 知的 成長要因만을 論議하고자 한다.

知的 成長은 자신과 環境에 대한 認識이 成長과 더불어 나타나게 된다. 그리하여 아동의 그림속에 자신의 環境을 얼마만큼 詳細히 描寫할 수 있는가에 따라 知的 成長이 測定될 수 있다.²⁵⁾ 또한 많은 色과 空間 關係에서도 有機性을 띠는 아동일수록 知的 成長이 높다고 볼 수 있다.²⁶⁾ 그것은 知能檢査에서도 空間概念을 重要한 內容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兒童畫를 통한 知能 測定이 Goodenough나 Harris같은 學者들에 의해서 可能하게 되었다.

Goodenough는 知能이란 經驗한 事實을 統合하여 目的 達成에 效率的으로 活用하는 能力이라 보았다. 또한 Harris는 知的 能力을 知覺한 事物間의 類似性和 差異點을 辨別해서 要約하며 事物의 固有한 屬性에 따라 分流하는 能力으로 보았다.²⁷⁾

Goodenough-Harris 人物畫 檢査에서 測定되는 知能은 被檢査者의 知的 成熟, 곧 概念的 成熟度(Conceptual Maturity)를 測定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아동이 人間의 모습에 대해 갖고 있는 一般的인 概念의 標本 또는 指數로 보기 때문이다.²⁸⁾

人物畫 檢査로 아동의 知能을 測定할 수 있다는 Goodenough-Harris의 생각은 兒童의 經驗과 年齡이 增加됨에 따라 基本 知能이 增加되기 때문에 아동의 그림이 改善된다는

25) V. Lowenfeld, Op. cit, PP.256~262.

26) Ibid, P.53.

27) Rhoda, Kellogg, Analyzing Children's Art (Palo Alto Ca: Mayfield Publishing Co, 1970), P.179.

28) 金在恩, 人物畫에 의한 知能 測定 (서울: 培英社, 1967), PP.5~6.

생각에 立脚한 理論이며, 人物畫에 의한 知能은 後天的이고 教育的인 經驗의 結果에 의한 知的 成熟을 意味한다.

이러한 Goodenough-Harris 人物畫 檢査의 內容은 形態를 詳細히 描寫하는 아동일수록 知能이 높다는 事實을 立證하는 理論이며 이 檢査를 實驗調查의 研究道具로 使用함으로써 兒童畫가 知能啓發에 影響을 미친다는 根據를 얻게 한다.

Goodenough는 아동이 그린 사람의 모습에서 얼마만큼 詳細히 周圍環境에 대한 描寫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知的 成熟度를 測定할 수 있다고 보고 人間을 詳細히 描寫하는 아동일수록 知能이 높은 아동임을 밝혀 냈다.²⁹⁾

따라서 Goodenough-Harris 人物畫 檢査는 知能和 兒童畫의 關聯性을 밝혀보고 知能啓發을 促進하는 手段으로서 早期 美術教育의 強化를 促求케 하는 것이다.

2. 知能和 表現能力의 發達

知的 能力이란 事物을 知覺하고 그 知覺한 事物間의 類似性和 差異를 辨別해서 抽象化하고 一般化하는 能力인데 이런 過程을 概念形成의 過程(Cognitive Process)이라 한다.³⁰⁾

Piaget의 理論에 의하면 知能의 發達は 서로 明確히 質的으로 區分될 수 있는 몇개의 段階를 거치는 非連續인 過程을 밟아 나간다. 그리고 各 段階에 到達하는 年齡은 兒童의 練習, 動機, 文化的 環境條件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나타나지만 이 段階를 거쳐 나가는 順序에 있어서는 누구나 일정 不變하다³¹⁾고 한다.

青木四郎는 그의 研究論文 '兒童의 人物畫와 發生的 觀察'(兒童研究所 紀要 第六卷, 1922)에서 知能和 表現을 連結지어 分析하였다. 亂畫期를 顔面 興味의 時期로 보고 다음의 前圖式期는 四肢分岐의 時期인데 이 때의 特徵은 차츰 外形的인 關心으로 옮겨가는 時期라고 하였다. 즉 동그란 얼굴을 그려낼 수 있는 能力이 생긴 이후에 팔이나 다리가 돌아나기 시작, 손가락까지 表現하는 技術로 發展하며 팔이나 다리의 表現이 可能한 것은 知能이 5歲정도 때부터 나타난다고 하였다.³²⁾

29) 韓國美術教育學會, 美術教育(서울: 教學圖書, 1970), PP. 52~53.

30) 金在恩, 그림에 의한 心理診斷(서울: 科學教育社, 1983), P.71.

31) ———, 幼兒의 發達心理(서울: 創知社, 1984), P.198.

32) 金正, 前掲書(1979), P.97.

한편 線으로 그리는 幼兒와 輪廓으로 그리는 幼兒가 있는데 이는 어릴수록 線描寫가 행해지고 점점 커가면서 輪廓線의 形態가 보인다고 한다. 知能年齡이 올라 갈수록 輪廓線으로 나타내어 지는 傾向이 뚜렷하게 늘어나는데 輪廓線이 점차 擴大되어 감은 描寫의 事實的 接近으로 解釋되고 있다. 輪廓의 發達이 成熟해 지면서 사람의 몸체를 둘러싼 部分으로 移動하게 되는데 이 때를 衣服 描寫의 時期로 나누고 있다.³³⁾

또한 5세쯤 되면 모자를 포함한 人間 姿態에 대한 兒童의 그림은 약 35% 이고 단 13%만이 머리를 본다. 8세 때의 比率은 45~72%로 증가한다.<表 1> 參照

<表 1> 年齡別 輪廓線 處理 能力

區 分 \ 歲	知 能 年 齡			
	5	6	7	8
손이 안 나타남	12(55%)	12(36%)	1(6%)	1(8%)
직 선 으 로	8(36%)	10(31%)	6(38%)	3(23%)
윤 곽	2(9%)	11(33%)	9(56%)	9(69%)

출처 : 金正(1979), p.99.

(숫자는 그림을 그린 유아의 실제수, 아오끼), 1921년 조사

같은 또래 아동의 그림의 差異뿐 아니라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나타나는 아동의 그림에 있어서의 變化는 10~11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特別한 藝術的 才能보다 一般的 知能에 더 가깝게 密集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年齡 增加에 따라 총명한 아동일수록 그림의 必須的인 部分을 덜 빠뜨리고 더 나은 比率의 感覺과 部分에 관계되는 아동의 思考가 더 뚜렷하다.³⁴⁾

이러한 輪廓 그림의 傾向을 青木四郎은 觀念的 또는 事實的 方向으로 이르는 過程으로 본다고 說明한다.³⁵⁾

Luquet는 '兒童畫 研究'를 통해서 8~9세 까지의 아동의 그림은 本質的으로 事實的 意圖에서 그려지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어떤 人物이나 事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그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뒤에야 보는 바를 그리게 된다는 것을 證明했다. 이 主張은 매우 基本的인 것으로서 그 重要性은 心象이란 것이 처음에는 概念畫이고 그 후에야 知覺되어진 대로의

33) 上掲書, PP. 99~103.

34) F. L. Goodenough, Developmental Psychology (N.Y : Appleton, 1945), PP. 221~238.

35) 金正, 前掲書(1979), P. 101.

것을 認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描畫의 事實性은 여러 가지 樣相을 거쳐 發達해 간다.

8~9세 경이 되면 知的 事實性의 뒤를 이어 視覺的 事實性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두가지 사실을 말해 준다. 하나는 그림이란 이미 어떤 特定한 透視畫法的 觀點에서 보여진 것만 表現되어지며, 다른 하나는 그림의 全體 計劃, 座標 軸 및 事物 相互의 數量的 比率에 따라서 事物의 配置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9~10세 이후가 되면 方向의 保存性, 여러가지 移動을 나타내는 群(Group), 여러 移動이나 比의 分割과 順序의 統合에서 생겨나는 測定單位 및 여러 自然的 參照物 내지 座標軸의 體系에 相應한 2~3次元의 測定이 完成되어지게 된다. 描畫의 發達은 이와같이 發達段階에 따라서 空間의 構造化와 關聯되어 있다는 것을 理解할 수 있다.

3. 知的 發達과 兒童畫

兒童畫에 나타나는 知的發達이란 아동이 그의 環境에 대한 描寫를 얼마나 자세히 나타냈는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⁶⁾

대체로 자유롭게 描寫할 수 있는 段階의 아동은 그림속에 細密한 部分을 描寫하려는 努力이 보인다. 이 表現은 같은 段階 아동의 그림을 서로 比較함으로써 知的 優秀性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描寫는 아동의 年齡이 增加하면서 色彩, 空間의 調和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이 表現속에 나타난다. 이 細密한 部分에 대한 描寫를 잘 表現하지 못할 때 어느 정도 그 部分에 대한 刺戟을 주어 表現하는 程度로서 知的 發達을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刺戟은 아동의 創作表現을 妨害하는 要因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表現에 制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刺戟으로 知的 發達을 도와야 한다.³⁷⁾

Ivanoff는 兒童畫와 學科成績과의 關係를 研究하여 肯定的인 相關을 提示하였고 Kerschensteiner는 1905年 '兒童畫의 描畫能力 發達'이라는 研究에서 精神薄弱兒와 正常兒의 그림 발달이 質的 量的으로 差異가 있음을 報告했으나, 이해 반해 Karwoski(1935年), Lewerenz (1929年), Manuel(1919年)등은 知能과 描畫能力과는 相關이 높지 않다고 否定했다.

그런데 이 否定的인 結果를 Gesell과 Goodenough는 知能과 兒童畫의 相關이 낮게 나왔던 初期의 研究는 傳統的인 審美的 表現 分析에 集中했기 때문이라고 批判하면서 美的 反應을

36) Victor, Lowenfeld,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4), P.159.

37) 吳致根, 「兒童發達段階에 따른 그림표현의 分析의 研究」(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8), P.30.

統制하고 全體的 比例, 動的 表現 등을 點數化하여 知能과의 相關을 .74라는 높은 關係를 提示하였다.

M. H. Hird는 '고양이의 描畫檢査'에서 .80이라는 높은 相關을 얻은 바 있고, 또한 金春一은 碩士學位 論文(1973)에서 아동의 描畫能力과 知的 反應 研究는 .65라는 肯定的 相關을 提示하였다.³⁸⁾

38) 鄭春模, 「兒童畫의 創造的 自己表現과 情緒的 要因에 대한 分析的 研究」(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PP. 17~18.

III. 研究의 方法

A. 研究의 對象

本 研究에서는 濟州市內에 所在하는 ○○國民學校 1~6學年 各 學年 60名씩 360名과 濟州道 南濟州郡 面所在地 ○○國民學校 1~6學年 60名씩 360名을 標準對象으로 하였다.

調査實施方法은 知能檢査紙를 活用하여 知能을 測定하였고, 表現能力은 8절 畫紙를 주어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도록 하였는데 回收 및 利用狀況은 <表 2>와 같다.

<表 2> 회수 및 이용상황

區 分	標集 部數	回收 部數	利用 部數
지 능 검 사	840	785(93.45%)	720(85.71%)
자 유 화	1,200	1,050(87.5%)	720(60.00%)

B. 測定 道具

本 研究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使用된 道具는 크게 나누어

- (1) 一般知能檢査³⁹⁾
- (2) 作品 評價 尺度表

여기서 知能檢査는 金 豪權이 만든 一般知能檢査 다라型(低學年用)과 鄭 範模, 金 豪權의 一般知能檢査 A型(高學年用)을 活用하여 原點數를 偏差 IQ의 方法으로 採擇하였다.

作品 評價 尺度表는 韓國教育開發院(KEDI, 1984)에서 제작한 評價 基準에 의하여 5가지 觀點을 上(3점), 中(2점), 下(1점)로 評價하였다.

1. 一般知能檢査(다·라형)

일반 知能을 測定하기 위하여 言語能力, 言語推理, 抽象推理 등 3개의 서로 다른 下位 檢査로 構成된 能力을 分析的인 立場에서 測定하여 各 原點數를 합한 總點으로 I·Q를

39) 金豪權, 一般知能檢査 檢査法 要綱(서울: 코리안테스팅 센터, 1987), PP.5~22.

算出하였다.

a. 言語능력(Verbal Ability)

각기 4개의 答肢를 가진 25개의 問項을 통하여 思考의 前提가 되고 意思疏通의 道具가 되는 能力의 測定

b. 言語推理(Pictorial Grouping)

각기 5개의 答肢를 가진 20개의 問項을 통하여 具體的 事物들을 分類하고 概念化하는 推理力의 知能要因을 測定

c. 도형추리(Figure Grouping)

각 5개의 答肢를 가진 25개 문항을 통하여 文化的 要因의 影響을 배제할 수 있고 知能의 特殊要因으로 볼 수 있는 抽象的 思考力을 測定

2. 一般知能檢査(A型)

일반지능검사 A형도 語彙適用, 언어추리, 산수추리, 수열추리, 도형추리 등의 각 하위 검사의 원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IQ를 산출하였다.

a. 語彙適用(Word Usage)

各 4개의 答肢를 가진 25개의 問項으로 單語의 뜻과 그 用途를 적절히 가려내는 能力

b. 言語推理(pictorial Grouping)

各 5개의 答肢를 가진 25개의 問項으로 言語로서 表象되는 概念間의 關係를 分析, 統合하여 抽出하는 能力

c. 算數推理(Arithmetic Grouping)

各 5개의 答肢를 가진 20개의 問項으로 數量을 포함하는 問題事態에서 數理的 關係를 分析, 綜合하는 能力

d. 數列推理(Numberial Grouping)

各 4개의 答肢를 가진 20개의 問項으로 數의 羅列에서 一定한 關係를 分析, 綜合하는 能力

e. 圖形推理(Figure Grouping)

各 5개의 答肢를 가진 20개의 問項으로 圖形의 羅列에서 一定한 關係를 分析, 綜合하여 抽出하는 能力

3. 作品 評價 尺度表

國民學校 美術科 實技評價 基準⁴⁰⁾에 의거 아동의 自由畫를 評價하였다. 〈附錄 1〉 參照

C. 資料의 處理

資料 分析은 知能指數別 表現能力을 5개의 觀點 즉 主題選定(Theme Selection), 畫面構成(Picture Composition), 彩色(Color), 表現內容(Expression Content), 表現技法(Expression Technique)別로 1~3點의 3段階로 評點化하여 Coding하였다.

Coding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의 下位 Program을 活用하여 處理하였다.

이 研究에서 適用된 統計的 方法으로는 Kendall Tau C 相關係數, 單純相關, 상관계수의 差檢定(CR계수), 平均差 檢定(t檢證)이다.

40) 韓國教育開發院, 國民學校 美術科 實技評價의 實際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개발연구 TR 84-10, 1984), PP. 26~27.

IV. 結果 및 解釋

本 研究의 序論에서 提示한 研究問題에 따라 調査, 評價, 分析된 結果를 解釋하고자 한다. 우선 本 研究를 통하여 調査된 各 變因의 點數의 綜合的인 結果는 <表 3-1>, <表 3-2>, <表 3-3>, <表 3-4>에 提示된 바와 같다.

<表 3-1> 성별, 지역별, 학년별 지능지수

區 分	성별(N=720)		지역별(N=720)		학 년 (N=720)					
	남 (N=360)	여 (N=360)	도시 (N=360)	농촌 (N=360)	1 (120)	2 (120)	3 (120)	4 (120)	5 (120)	6 (120)
M	111.10	110.65	110.50	111.25	110.63	110.39	112.19	111.56	113.03	107.44
SD	16.0709	16.3099	16.6796	15.9652	17.8165	14.8680	15.0067	14.9241	14.9671	19.1459

<表 3-2> 성별에 따른 관점별 표현능력 점수

區 分		주 제 선 정 (T.S)	화 면 구 성 (P.C)	색 채 (Co)	표 현 내 용 (E.C)	표 현 기 법 (E.T)	계
남	M	2.15	2.19	2.14	2.06	2.06	10.59
	SD	.6623	.6923	.6838	.7084	.6953	2.9348
여	M	2.17	2.23	2.13	2.02	2.10	10.66
	SD	.5931	.6052	.5936	.6451	.6481	2.4981

<表 3-3> 지역별에 따른 관점별 표현능력 점수

區 分		(T.S)	(P.C)	(Co)	(E.C)	(E.T)	계
도 시	M	2.09	2.19	2.11	2.02	2.06	10.46
	SD	.6393	.6719	.6583	.6969	.6970	2.9018
농 촌	M	2.23	2.23	2.16	2.06	2.11	10.79
	SD	.6098	.6322	.6206	.6573	.6472	2.5259

〈表 3-4〉 학년별에 따른 관점별 표현능력 점수

區 分		(T.S)	(P.C)	(Co)	(E.C)	(E.T)	계
1학년	M	1.99	2.05	2.00	1.88	1.91	9.825
	SD	.6769	.6813	.6191	.7367	.6831	2.9059
2학년	M	2.35	2.39	2.31	2.02	2.30	11.367
	SD	.6538	.6231	.6027	.6453	.6658	2.6769
3학년	M	2.27	2.34	2.21	2.29	2.17	11.275
	SD	.5588	.5986	.6311	.6506	.6368	2.4425
4학년	M	2.13	2.23	2.04	2.07	2.03	10.5
	SD	.6316	.6119	.6506	.6920	.6446	2.6300
5학년	M	2.17	2.14	2.15	2.03	2.07	10.55
	SD	.5963	.6493	.6007	.6553	.6549	2.6200
6학년	M	2.05	2.10	2.09	1.98	2.02	10.233
	SD	.5752	.6758	.6831	.6385	.6829	2.7256

1. 知能과 兒童의 自由畫와의 相關關係

도시 아동의 知能과 自由畫와의 상관계수를 表로 나타내면 〈表 4-1〉과 같다.

〈表 4-1〉 都市兒童의 知能과 自由畫의 相關關係

區 分	男						女					
	1	2	3	4	5	6	1	2	3	4	5	6
自由畫	.63***	.83***	.73***	.55***	.29*	.44**	.52**	.57***	.47**	.55***	.23	.33*

*P<.05 **P<.01 ***P<.001

〈表 4-1〉에 의하면 都市 兒童의 知能과 自由畫와의 사이에는 상관계수가 .55~.83으로서 P<.001 水準에서 높은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男·女 모두 低學年에서는 統計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高學年으로 올라갈수록 知能과 自由畫와의 상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農村 兒童의 知能과 自由畫와의 相關關係를 表로 나타내면 <表 4-2>와 같다.

<表 4-2> 農村兒童의 知能과 自由畫의 相關關係

區 分	男						女					
	1	2	3	4	5	6	1	2	3	4	5	6
自由畫	.58***	.56***	.50**	.29*	.64***	.68***	.65***	.77***	.54***	.44**	.56***	.56***

*P<.05 **P<.01 ***P<.001

<表 4-2>에 의하면 農村 兒童의 知能과 自由畫와의 사이에는 相關係數(r)가 .54~.77로서 P<.001 수준에서 높은 相關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都市와 달리 學年에 관계없이 知能과 自由畫의 相關關係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知能이 높을수록 自由畫의 表現能力이 優秀하다고 할 수 있다.

2. 知能과 觀點別 表現能力의 相關關係

性別에 따른 都市 兒童의 知能과 觀點別 表現能力의 상관계수를 表로 나타내면 <表 5-1>과 같다.

<表 5-1> 都市兒童의 知能과 觀點別 表現能力의 상관계수

區 分	男						女						Total
	1	2	3	4	5	6	1	2	3	4	5	6	
T.S	.54***	.61***	.48***	.36**	.39**	.38**	.42**	.43**	.46***	.35	.47***	.25*	.42***
P.C	.42**	.77***	.53***	.52***	.25	.46**	.41**	.52***	.36**	.28*	.17	.23	.40***
Co	.55***	.47**	.45**	.43**	.22	.38*	.37**	.40**	.23	.25*	.25	.16	.36***
E.C	.52***	.61***	.55***	.44**	.06	.32*	.24	.41**	.18	.44**	.24	.33*	.36***
E.T	.54***	.67***	.53***	.44**	.25	.47**	.45**	.48***	.21	.46***	.23	.27*	.42***

*P<.05 **P<.01 ***P<.001

<表 5-1>에 의하면 知能과 觀點別 表現能力에 있어서 學年이 낮을수록 相關係數 r=.46~.77로서 P<.001水準에서 높은 相關關係를 보여주고 있으며 女兒보다는 男兒가 知能과 높은 相關을 나타내고 있다. 즉 都市 兒童에게 있어서는 知能과 觀點別 表現能力 관계는

低學年の 경우 知能이 높을수록 表現能力이 優秀하지만 高學年으로 갈수록 知能和 表現能力은 比較的 낮은 相關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造形活動이나 創作은 知能에 크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⁴¹⁾라는 金正의 主張과 一致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全體的인 面에서 보면 相關係數 $r = .36 \sim .42$ 로서 $P < .001$ 水準에서 높은 相關을 보여 주고 있으며 知能和 觀點別 表現能力에 있어서 가장 높은 相關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主題選定(T.S)과 表現技法(E.T)이다.

農村 兒童의 知能和 觀點別 表現能力의 相關關係를 表로 나타내면 <表 5-2>와 같다.

<表 5-2>에 의하면 農村 兒童의 知能和 表現能力의 相關은 學年에 관계없이 相關係數 $r = .47 \sim .69$ 로서 $P < .001$ 水準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認知能力和 描畫活動의 相關性 調査'에서 主題, 對象描寫力, 面, 構圖에 있어서는 認知能力(知能和 學習力)과 관계가 있다는 金貞姬⁴²⁾의 分析과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즉 男子는 色彩, 表現內容, 表現技法과 높은 相關을 나타내고 있으며 女子는 主題選定, 畫面構成과 높은 相關을 보여주고 있다.

全體的인 面에서 보면 $r = .36 \sim .40$ 으로 $P < .001$ 水準에서 相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畫面構成, 色彩, 表現技法이 統計的으로 높다.

<表 5-2> 농촌아동의 지능과 관점별 표현능력의 상관관계

區分	男						女						Total
	1	2	3	4	5	6	1	2	3	4	5	6	
T.S	.36**	.50**	.33*	.25	.37**	.40**	.52***	.53***	.37*	.32*	.54**	.34**	.37***
P.C	.42**	.39**	.39**	.06	.41**	.64***	.49***	.45**	.64***	.30*	.36**	.35*	.40***
Co	.53***	.52***	.35*	.13	.55**	.47**	.56***	.37**	.38**	.25*	.36**	.43**	.40***
E.C	.52***	.32*	.27	.22	.54***	.36**	.24	.69***	.11	.35*	.26*	.40**	.36***
E.T	.54***	.47***	.35**	.26*	.31*	.34*	.45**	.48***	.42**	.27*	.37**	.42**	.40***

* $P < .05$ ** $P < .01$ *** $P < .001$

學年別로 知能和 表現能力의 相關關係를 보면 <表 5-3>과 같다.

41) 金正, 兒童繪畫의 理解(서울: 創知社, 1987), P.92.

42) 金貞姬, 「認知能力和 描畫活動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5), PP.51~52.

〈表 5-3〉 학년별 지능과 관점별 표현능력의 상관관계

區分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6 학년	Total
T.S	.46***	.48***	.39**	.34**	.39**	.34*	.40**
P.C	.42***	.53***	.44***	.30*	.29*	.42**	.40***
Co	.50***	.43**	.36**	.30*	.30*	.36**	.37***
E.C	.38**	.51***	.29*	.38**	.27*	.35**	.36**
E.T	.51***	.54***	.38**	.38**	.29*	.37**	.41**

* P<.05 ** P<.01 *** P<.001

〈表 5-3〉에 의하면 1학년 아동은 지능과 觀點別 表現能力의 상관계수 $r = .42 \sim .51$ 로서 $P < .001$ 水準에서 表現技法, 色彩, 主題選定, 畫面構成 순으로 相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학년은 表現技法($r = .54$), 畫面構成, 表現內容, 主題選定과 높은 相關을 나타내고, 3학년은 畫面構成과의 相關係數 $r = .44$ 로서 $P < .001$ 水準에서 關係를 보여주고 있으나 4학년 이상은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全體的으로는 $r = .37 \sim .40$ 으로 $p < .001$ 水準에서 畫面構成, 色彩와 높은 상관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3. 知能과 表現能力의 相關關係의 差

性別과 地域別에 따른 지능과 表現能力의 相關關係의 差는 〈表 6-1〉과 〈表 6-2〉에 나타나 있다.

〈表 6-1〉 성별에 따른 지능과 표현능력의 상관관계의 차

區分	T.S	P.C	Co	E.C	E.T	Total
男	.41116	.43917	.41563	.44143	.43046	.54606
女	.38667	.35593	.32803	.34072	.38792	.50965
CR계수	0.389	1.339	1.375	1.587	0.677	0.667

〈表 6-2〉 지역별 지능과 표현능력의 상관관계의 차

區分	T.S	P.C	Co	E.C	E.T	Total
도시	.42100	.40067	.34546	.36113	.41734	.50326
농촌	.37356	.39567	.40278	.36183	.39729	.55410
CR계수	0.746	0.079	0.892	0.000	0.323	0.944

〈表 6-1〉, 〈表 6-2〉에서 性別, 地域別에 따른 知能과 觀點別 表現能力의 상관관계의 차를 CR계수에 의하여 檢證하였는데 모두 $P=0.10$ 에서 無意味한 差異(N.S)를 보여주고 있다. 즉 性別, 地域別에 따라 知能과 表現能力의 相關에 대한 差異는 없다고 解釋된다.

4. 知能이 表現能力에 미치는 影響

知能이 觀點別 表現能力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單純回歸分析을 實施한 結果는 〈表 7-1〉, 〈表 7-2〉, 〈表 7-3〉과 같았다.

〈表 7-1〉 性別에 따른 지능이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區分		T.S	P.C	Co	E.C	E.T	Total
남	R	.41116	.43917	.41563	.38236	.43046	.54606
	R ²	.16905	.19287	.17275	.14620	.18530	.29818
여	R	.38667	.35593	.32803	.34072	.38792	.50965
	R ²	.14951	.12668	.10760	.11609	.15048	.25974
계	R	.39953	.39925	.37398	.36230	.40931	.52850
	R ²	.15962	.15940	.13986	.13126	.16753	.27931

〈表 7-1〉에 의하여 性別에 따라 知能이 觀點別 表現能力에 미치는 影響을 說明할 수 있는 부분은 男子인 경우 畫面構成, 表現技法에 19%, 主題選定, 色彩에 17% 정도이며 女子의 경우는 表現技法, 주제선정에 15%, 畫面構成에 12%, 色彩, 表現內容에 11%로서 男子가 女子보다 다소 많은 影響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男子는 畫面構成과 表現技法에 決定力이 크고, 女子는 表現技法에 決定力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都市兒童과 農村兒童의 知能이 表現力에 미치는 결정력을 調査한 結果는 〈表 7-2〉에 나타나 있다.

〈表 7-2〉 지능이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地域別)

區 分		T.S	P.C	Co	E.C	E.T	Total
도 시	R	.42100	.40067	.34546	.36113	.41734	.50326
	R ²	.17724	.16054	.11934	.13041	.17417	.25327
농 촌	R	.37356	.39576	.40278	.36183	.39729	.55410
	R ²	.13955	.15663	.16223	.13092	.15784	.30703

〈表 7-2〉에서 地域別로 살펴 본 知能에 의한 表現能力의 決定力 調査에서는 都市의 경우 主題選定(18%), 表現技法(17%), 畫面構成(16%)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農村의 경우는 畫面構成, 色彩, 表現技法이 各 16%로 比較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農村보다는 都市의 兒童의 表現能力을 決定하는데 知能이 높게 作用하고 있다.

〈表 7-3〉 지능이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학년별)

區 分	T.S	P.C	Co	E.C	E.T	Total
1 학 년	.21103	.17886	.24791	.14282	.25503	.34541
2 학 년	.23120	.28600	.18832	.25840	.28913	.45901
3 학 년	.15569	.19269	.13035	.08266	.14663	.32206
4 학 년	.11461	.09000	.08888	.14519	.14377	.21933
5 학 년	.15341	.08604	.08851	.07539	.08266	.16913
6 학 년	.11674	.17992	.13020	.12338	.13721	.24461

〈表 7-3〉에 의하여 知能이 表現能力에 미치는 영향을 學年別로 살펴보면 1학년은 表現技法에 26%나 차지하고 있으며 色彩(25%), 주제선정(21%), 畫面構成(18%), 表現內容(14%) 순으로 決定力이 나타나고 있다.

2학년은 表現技法, 畫面構成에 미치는 영향력이 2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表現內容이 26%, 주제선정이 23%, 色彩가 19%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저학년 아동들에게 있어서 決定力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동들이 그림을 그릴때에 큰 特性이 衝動的이면서도 自己中心的이라는 점이다. 作品이 衝動的일 경우에는 形態나 色感에 그 狀況속의 感情이 作用하기 때문에 現實性이 떨어지는 반면, 色感도 대

답해지고 表現方法이 自由스러운 점이 特色이다.

3학년에 있어서는 畫面構成(19%), 주제선정(16%)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日常生活속의 經驗을 주로 그리며 幼兒나 低學年때의 自己中心의이면서 未分化, 不均衡의 表現樣相에서 벗어나 比較的 主題를 뚜렷이 하여 그리는 傾向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학년에 있어서는 表現內容과 表現技法에 15%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학년은 主題選定, 6학년은 畫面構成의 觀點에서만 15% 이상 나타나고 있어서 高學年은 客觀的 描寫를 憧憬하거나 合理的인 事實描寫를 존중하는 時期로서 描寫力이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므로 知能이 미치는 영향력은 低學年처럼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또한 自由畫에 대한 영향력으로는 저학년에 있어서 3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知能이 表現能力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解釋된다.

5. 知能和 表現能力의 差異

性別, 地域別, 學年別에 따라 知能和 表現能力에 있어서 얼마나 差異가 있을까 하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平均差 檢定을 實施한 結果는 <表 8>과 같다.

<表 8> 知能和 表現能力의 差異

區 分	T.S	P.C	Co	E.C	E.T	Total
학 년 별	-.03509	-.04366	-.01064	.01704	-.02116	-.02464
성 별	-.00892	-.02360	.01215	.03177	-.02970	.00799
지 역 별	.11252**	.03054	.04145	.03316	.03826	.04921

** P < .01

<表 8>에서 살펴보면 性別, 學年別에 따른 表現能力의 差異는 거의 없으나 地域別에 있어서는 主題選定의 觀點에서만 P < .01 水準에서 조금 差異있게 나타났다. 이것은 都市에 있어서는 低學年이, 農村에 있어서는 全學年이 普遍的으로 높은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는 結果라 解釋된다.

V. 要約 및 結論

A. 要約

本研究의 目的은 造形行爲인 表現能力에 知能이 어떠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가를 糾明하는 것이며 이러한 研究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兒童의 自由畫를 5가지 觀點에서 評價·分析하여 個人別 知能和 關聯지어 兩者間의 相關關係를 考察하였다.

測定 道具로는 一般知能檢査 A型, 다라型和 KEDI에서 制作한 國民學校 美術科 實技 評價 基準을 使用하였다.

本 研究은 濟州市內에 所在하는 ○○國民學校 1~6學年 各 學年 60名씩 360名과 南濟州郡 ○○面內에 所在하는 ○○國民學校 1~6學年 各 60名씩 360名을 標準하여 720名을 對象으로 하였다.

本 研究에서 考察한 具體的인 研究 問題는 다음과 같다.

첫째, 知能和 兒童의 自由畫와의 相關關係

둘째, 知能和 觀點別 表現能力의 相關關係

셋째, 知能和 表現能力의 相關關係 差異

넷째, 知能이 表現能力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知能和 表現能力의 差異

먼저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상관관계를 나타내 보았다. 그 결과 都市에서의 知能和 自由畫와 相關係數 $r = .55 \sim .83$, 農村에서의 $r = .54 \sim .77$ 로서 $P < .001$ 水準에서 統計적으로 意義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都市의 경우 男·女 모두 低學年에서가 높게 나타났으나 農村의 경우에는 性別, 學年에 關係없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지능이 높을수록 自由畫의 表現能力이 優秀함을 意味한다.

다음 둘째 問題와 관련하여 兒童의 知能和 觀點別 表現能力의 相關關係를 考察하였다.

그 결과, 地域別에 따른 知能和 觀點別 表現能力의 相關關係에서 都市의 경우는 상관계수 $r = .36 \sim .42$ 로 $P < .001$ 水準에서 主題選定, 表現技法에 높게 나타났고 農村의 경우는 $r = .47 \sim .69$ 로 $P < .001$ 水準에서 畫面構成, 色彩, 表現技法에 높게 나타났다. 學年別에 따른 상관계수가 主題選定에는 1학년($r = .46$), 2학년($r = .48$)이 높게 나타났고, 畫面構成에는 1학년($r = .42$), 2학년($r = .53$), 3학년($r = .44$)이 높으며 色彩에서는 1학년($r = .50$)이, 表現內容에

서는 2학년($r = .51$)이, 表現技法에서는 1학년($r = .51$), 2학년($r = .54$)이 높게 나타났다.

세째 問題와 관련하여 性別, 地域別로 知能과 表現能力間의 差異가 있는지 相關係數의 差異를 CR係數에 의하여 檢證하였다. 그 結果 $p=0.10$ 水準에서 모두 無意味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어서 男女間의 表現能力과 都市와 農村間의 表現能力의 差異는 거의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네째 問題와 관련하여 表現能力에 대한 知能의 영향력을 分析하기 위하여 單純回歸分析을 해 본 結果 表現能力에 미치는 知能의 決定力은 男子 15~19%, 女子 11~15%이며, 都市는 12~18%, 農村은 13~16%였고, 學年別로 미치는 영향력은 저학년에서 20% 이상 表現能力에 知能이 作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問題와 관련하여 性別, 地域別, 學年別에 따른 知能과 表現能力의 差異를 糾明하고자 平均差 檢定을 하였다. 그 結果 性別, 學年別에 따른 差異는 없었지만 地域別에 따른 주제선정의 觀點에서만 $P = .01$ 水準에서 조금 差異를 보였다.

B. 結 論

本 研究의 目的에 비추어 考察한 研究 結果를 基礎로 結論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兒童의 知能과 自由畫의 사이에는 相關關係가 있다. 즉 知能이 높을수록 兒童의 自由畫는 水準이 높고 이것은 低學年의 경우 뚜렷하다.

둘째, 兒童의 知能과 觀點別 表現能力間에는 相關이 높다. 즉 地域別, 學年別로 다소 差異는 있지만 知能이 높은 兒童일수록 主題選定, 書面構成, 色彩, 表現技法의 觀點에 있어서 知能이 낮은 兒童보다 월등히 높다.

세째, 兒童의 知能과 觀點別 表現能力의 相關關係에 있어서 性別, 地域別로 差異는 거의 없다. 즉 性別이나 地域에 관계없이 知能과 觀點別 表現能力과의 相關關係는 一定하다.

네째, 兒童의 表現能力에 영향을 주는 要因중에서 知能이 10~20%로 나타나 知能이 兒童의 表現能力에 重要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知能의 向上을 위해서는 幼兒期부터 表現能力을 伸張시켜줌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性別, 地域別 兒童의 知能과 表現能力의 差異는 거의 없다.

이상과 같은 結論에서 兒童의 表現能力은 知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즉 女兒보다는 男子 兒童이 書面構成, 表現技法, 主題選定の 觀點에서 知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地域別에 따른 都市의 兒童은 主題選定에, 農村의 兒童은 書面構成에

知能이 作用하고 있음을 指摘할 수 있다. 또한 學年이 낮을수록 表現能力에 대한 知能의 決定力이 크다는 事實로서 高學年으로 갈수록 知能보다는 適性이나 技能에 의해 表現能力이 決定됨을 感知할 수 있었다.

兒童의 表現能力 發達에 미치는 知能의 영향력을 糾明해 보려는 探索的 研究로서의 本 研究의 結果과 滿足할만한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이러한 認知能力과 表現能力間의 상관관계를 보다 客觀的인 方法으로 一般化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研究의 範圍를 地域別로 細分化하여 그에 相應하는 對象을 標集할 때 廣範하고 精密한 調查研究가 이루어질 것이며 測定道具에 대한 主觀的 偏見의 誤差를 줄이는 方法으로 檢査紙의 客觀性과 檢査時의 同一한 條件과 統制下에서 얻어진 것일 때 보다 妥當性있는 結果과 나오리라 豫상된다.

또한 兒童畫의 蒐集過程에서 빚어지는 誤差 즉 兒童畫가 同一한 條件속에서 發想, 構想, 表現이 이루어지고 客觀的인 評價方法에 의해 評價되어야 滿足할만한 結果가 나오리라 豫見된다.

앞으로 生活環境이나 家庭環境에 따르는 知能과 表現能力 發達을 糾明함으로써 兒童畫의 理解 增進 및 美術教育의 效果的인 指導方向 定立에 이바지 할 것이라 생각되며 兒童의 適性과 表現能力間의 상관관계 檢證方法을 摸索하고 客觀的인 道具와 方法에 의해 研究가 이루어 진다면 兒童 美術教育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으리라 確信한다.

參 考 文 獻

- 金永學, 美術의 教育, 서울: 향서각, 1977.
- 김옥련, 어린이 이해와 指導, 서울: 學文社, 1982.
- 金鍾喆, 技能의 教育, 서울: 培英社, 1969.
- 金在福, 美術科 授業과 評價, 서울: 一志社, 1984.
- 金在恩, 人物畫에 의한 知能測定, 서울: 培英社, 1967.
- , 그림에 의한 兒童의 心理珍斷, 서울: 教育科學社, 1978.
- , 人間發達의 過程, 서울: 전망사, 1983.
- , 幼兒의 發達心理, 서울: 創知社, 1984.
- 金在思, 李成珍, 藝術을 통한 教育, 幼兒教育全書, 서울: 培英社, 1980.
- 金 正, 兒童과 美術教育, 서울: 培英社, 1983.
- , 幼兒의 美術入門, 서울: 一志社, 1983.
- , 幼兒를 위한 조형놀이 教育, 서울: 教文社, 1985.
- , 幼兒 美術指導, 서울: 韓國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5.
- , 美術教育總論, 서울: 學研社, 1984.
- , 兒童繪畫의 理解, 서울: 創知社, 1987.
- 金春一, 美術教育論, 서울: 흥성사, 1984.
- , 兒童美術論, 서울: 美進社, 1985.
- 盧在又, 美術教育論, 서울: 學文社, 1984.
- 미술교재편찬회, 美術概論, 서울: 學文社, 1988.
- 심효식, 兒童畫의 指導와 評價, 서울: 培英社, 1969.
- 李仁台, 幼兒美術教育, 서울: 보육사, 1987.
- 李鍾學, 어린이 美術教育, 서울: 美造社, 1978.
- 李貞煥, 幼兒를 위한 美術教育, 서울: 교문사, 1984.
- 林英芳, 國民학교 미술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 전상범, 造形活動의 指導技術,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8.
- 崔宗寅, 兒童美術指導, 서울: 營雪出版社, 1985.

- 한국교육개발원, 국민학교 미술과 實技評價의 實際,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開發研究, TR84-10, 1984.
- 한국미술교육학회, 美術教育, 서울 : 교학도서, 1970.
- Arnheim, R(1966), 藝術心理學, 金在思(譯), 서울 :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84.
- Lindstrom, M(1972), 兒童美術의 世界, 金正(譯), 서울 : 悅話堂, 1980.
- Piaget, J(1928), Piaget의 兒童心理學, 金在思(譯), 서울 : 教育科學社, 1983.
- 김보애, 「兒童畫의 地域間 表現能力 및 類型에 관한 研究」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3.
- 金貞姬, 「認知能力和 描畫活動의 상관성에 관한 研究」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金春一, 「寫實期 兒童의 描畫能力和 創意性과의 상관관계」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72.
- 도혜련, 「主題畫에 따른 아동의 表現能力和 興味度 分析」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85.
- 吳玟根, 「兒童發達段階에 따른 그림표현의 分析的 研究」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78.
- 유원상, 「9~12세 兒童의 그림과 指導方法」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정춘모, 「兒童畫의 創造的 自己表現과 情緒的 要因에 대한 分析的 研究」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 Alschuler, R, and Hattwick, L, Berta Weiss, Painting and Personalit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
- Goodenough, F.L, Developemental Psychology, New York ; Appleton, 1945.
- Kellogg, R, Analyzing Children's Art, Palo Alto Ca ; Mayfield Publishing Co, 1970.
- Lowenfeld, V,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64.
- Luca, M and Kent.R, Art Education, Strategiee of Teaching,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68.

(부록1)

실기평가기준

1 ~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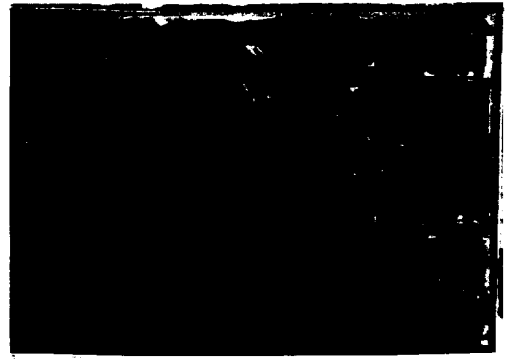
평가관점	평가기준			비고
	상 (3)	중 (2)	하 (1)	
주제선정 (Theme selection)	주제가 잘 나타나도록 재미있고 일상적인 소재를 선택하였다.	주제와 관련은 있으나 평범한 소재를 선택하였다.	주제가 잘 나타나지 않는 소재를 선택하였다.	
화면구성 (Picture Composition)	화면구성이 자유롭고 짜임새가 있다.	화면구성이 부분적으로 자유롭고 산만하다.	화면구성이 단조롭고 짜임새가 없다.	
색채 (Color)	다양한 색채가 조화되어 아름답다	다양한 색을 사용했으나 부분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단조로운 색채로 변화가 없다.	
표현내용 (Expression Content)	내용이 풍부하고 대상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표현했다.	내용이 단조롭고 특징이 부분적으로 표현되었다.	표현내용이 적고 대상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현기법 (Expression Technique)	재료와 용구를 잘 이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였으며 표현효과가 잘 나타났다.	재료와 용구를 이용하여 표현하였으나 표현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재료와 용구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해 표현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평가관점	평 가 기 준			비 고
	상 (3)	중 (2)	하 (1)	
주제선정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뚜렷이 나타났고 소재가 재미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알아 볼 수는 있으나 소재와 주제의 관련이 적다.	주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알맞은 소재가 아니다.	
화면구성	대상의 배치가 짜임새가 있고 강조점과 변화를 잘 살려 대담하다.	대상의 배치가 부분적으로 산만하며 변화가 적다.	대상의 배치가 매우 산만하며 짜임새가 없다.	
색 채	혼색과 중색의 효과를 살렸으며 독창적인 색을 만들어 대담하게 채색하였다.	부분적으로 혼색효과를 살렸으나 개념적인 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개념적인 색만 사용하였으며 채색효과를 살리지 못하였다.	
표현내용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표현하였고 내용이 풍부하게 나타났다.	화면 가득히 그렸으나 표현내용이 풍부하지 못하여 단조롭다.	자세히 표현된 부분이 없으며 표현내용이 적어서 화면이 대부분 비어있다.	
표현기법	재료와 용구의 특성과 사용법을 잘 알고 익숙하게 사용하며 표현기법을 살려 표현했다.	재료와 용구의 특성과 사용법을 알지만 사용이 미숙하며 표현기법을 부분적으로 살려 표현했다.	재료와 용구의 특성과 사용법을 몰라서 표현 기법을 살리지 못했다.	

평가관점	평 가 기 준			비 고
	상 (3)	중 (2)	하 (1)	
주제선정	그리고자한 것의 주제를 살려 표현하였다.	그리고자한 것의 주제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그리고자한 것의 주제를 살리지 못하였다.	
화면구성	형과 색의 배치, 화면의 짜임새 등의 변화와 통일을 이루도록 의도적으로 표현했다.	형과 색의 배치, 화면의 짜임새 등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형과 색의 배치, 화면의 짜임새 등에 표현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색 채	혼색과 중색의 효과를 살려 독창적인 색을 만들어 채색하였으며 어울리게 배색되었다.	혼색과 중색의 효과를 살렸으나 부분적으로 어울리지 않게 배색하였다.	혼색과 중색의 효과를 살리지 못했고 배색이 어울리지 않는다.	
표현내용	내용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뛰어나 표현내용이 풍부하다.	내용을 충분히 시각화하지 못하여 표현내용이 부분적으로 빈약하다.	내용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모자라 표현내용이 매우 모자라다.	
표현기법	표현에 알맞는 재료와 용구의 성질을 살려 표현기법을 효과적으로 잘 살렸다.	재료와 용구의 성질을 부분적으로 살려 사용했으나 표현기법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재료와 용구의 성질을 살리지 못하고 사용도 미숙하여 표현기법이 충분하지 못하다.	



도시 1 - 상



농촌 1 - 상



도시 1 - 중



농촌 1 -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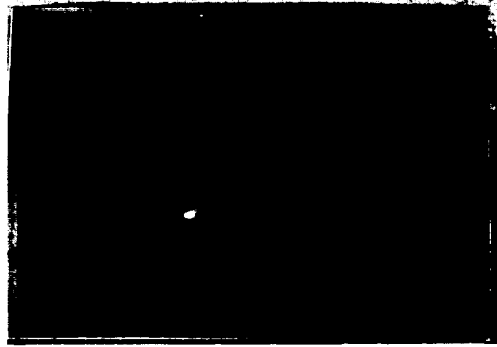
도시 1 -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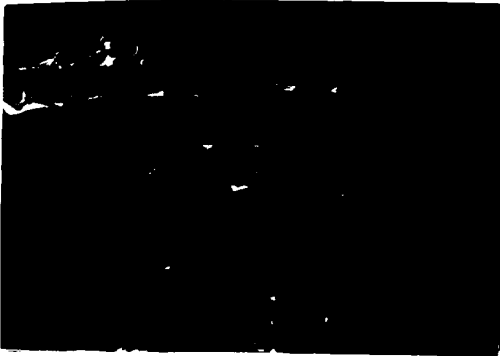
농촌 1 -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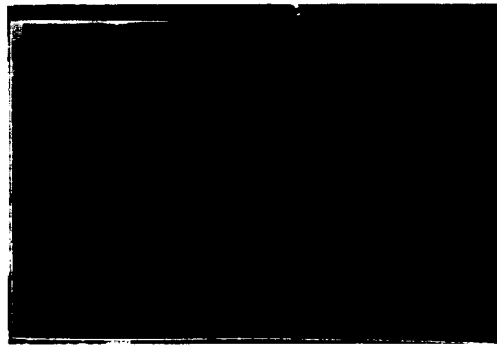
도시 2 -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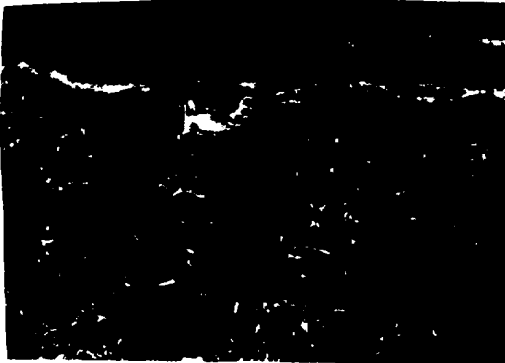
농촌 2 -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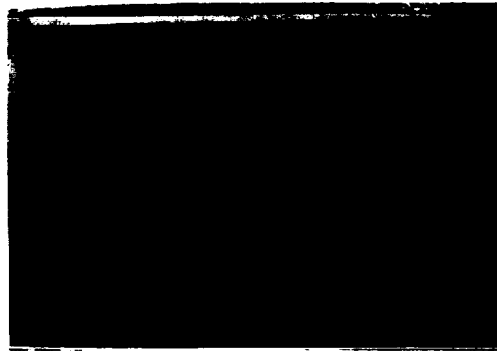
도시 2 - 중



농촌 2 - 중



도시 2 -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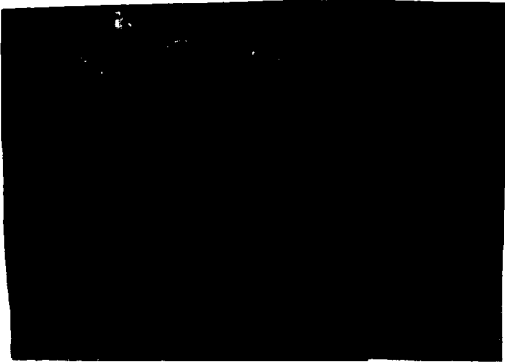
농촌 2 -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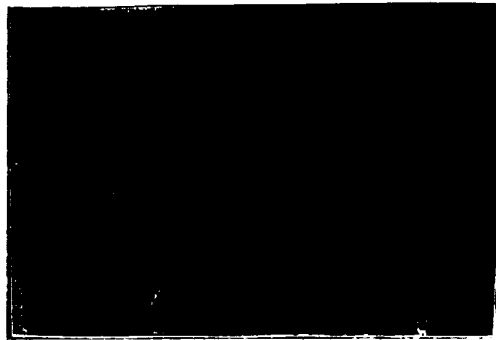
도시 3 - 상



농촌 3 - 상



도시 3 - 중



농촌 3 - 중



도시 3 - 하



농촌 3 - 하



도시 4 - 상



농촌 4 - 상



도시 4 - 중



농촌 4 -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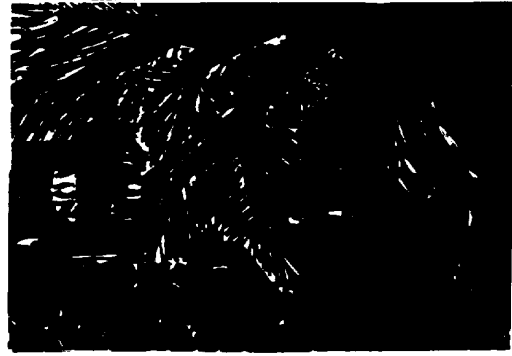
도시 4 - 하



농촌 4 - 하



도시 5 - 상



농촌 5 - 상



도시 5 - 중



농촌 5 - 중



도시 5 -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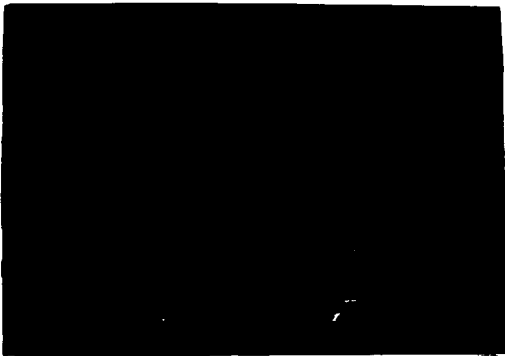
농촌 5 - 하



도시 6 -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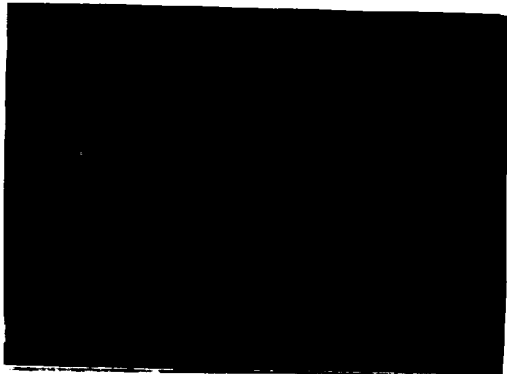
농촌 6 -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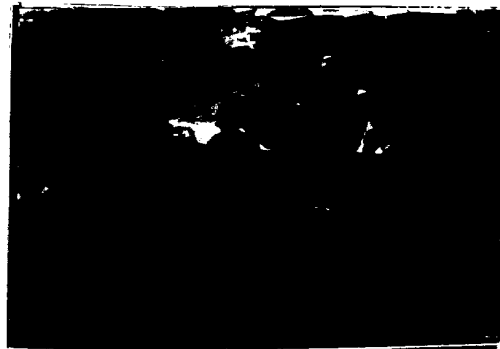
도시 6 - 중



농촌 6 - 중



도시 6 - 하



농촌 6 - 하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Power of Expression and Intelligence

— Centering around the Free Paintings of Children in Cheju Do —

Kang Young - Gu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Chang - Bo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closely how much mental faculties of children affects the power of expression on their free paintings, a kind of formative arts.

In this study, I observed the free paintings from five angles.

The objects were 720 primary school students in Cheju City and Nam Chejukun.

And I came to conclusions as follows :

1. There was deep interrelation between intelligence and the power of expression ; a boy who had and excellent intelligence was superior to others in their paintings.
2. There was little discrepancy in ability from sex, or region.
3. Intelligence formed 10 ~ 20 Percent of the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expression on the expression.

In conclusion, it was revealed that the expression ability of children was affected by their mental faculties. And that supports the general theory mentioned above, although there were somewhat individual differences in doing so.

謝 辭

本人이 碩士學位 論文을 쓰기까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論文을 誠心껏 直接 指導해 주신 梁昌普 教授님, 恒時 격려와 有益한 말씀을 주신 文基善 教授님, 許明順 教授님, 許敏子 教授님, 夫賢一 教授님, 康東彦 教授님, 李東根 教授님, 任春培 教授님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資料收集 過程에서 協助해 주셨던 洪性旭, 金振鮮, 梁東烈 선생님과 資料 處理過程에서 큰 도움을 주신 鄭大然 教授님, 오혜선 선생님들께도 感謝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님, 아내 玄玉順, 내 사랑하는 賢植, 賢成에게 이 論文을 贈物로 드립니다.